

상고중국어 부사의 주관량

尹淳一*

<목 차>

1. 서론
2.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량
3. 상고중국어 부사의 주관량
4. 주관량 표현의 생성 원리
5. 결론

1. 서론

‘양(量)’이란 통상적으로 ‘질(質)’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얼마만큼’이라는 물음에 해당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말한다. ‘양’은 인류가 객관세계를 인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객관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물, 동작, 성질이나 상태 등은 모두 양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¹⁾ 인류는 이들을 인지하기 위해 인지범주로서의 양 범주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지범주로서의 양 범주는 언어로 투사되어 의미범주로서의 양 범주(quantity category)²⁾가 형성되었다.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chunyi@daum.net)

- 1) 일반적으로 사물에는 공간적 양 범주와 수량적 양 범주를 내포하며 사건에는 시간적 양 범주와 동작적 양 범주를 내포한다. 성질이나 상태의 경우 정도성의 양 범주를 내포한다.
- 2) 양 범주의 하위분류에 대하여, 李宇明(2000)은 물량(物量), 공간량(空間量), 시간량(時間量), 동작량(動作量), 순서량(級次量), 어세(語勢) 6분류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이선희(2003)는 공간량(空間量), 시간량(時間量)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상량(性狀量)으로 통합하고 3분류 체계를 주장하였다. 한편 羅榮華(2012)는 李宇明의 등급량과 어

그런데 언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단순히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진리조건적 의미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관한 자신의 입장, 태도, 감정 등을 함께 전달하기도 한다. 언어의 主觀性(subjectivity)이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지칭한다.³⁾ 언어의 量 범주도 당연히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은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量을 표현하면서도 종종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 태도, 평가 등을 첨가하는데, 主觀量(subjective quantity)이란 바로 이러한 주관성이 반영된 양 범주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객관량은 주관성이 배제된 양을 의미한다.

최근 현대중국어의 주관량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관심은 상당히 큰 편으로 관련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고대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주관량의 정의, 생성원리, 분류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주관량에 관한 기존의 성과를 종합하여, 상고중국어 문헌인 《左傳》, 《論語》, 《孟子》, 《莊子》, 《史記·列傳》 등을 중심으로 상고중국어 부사가 나타내는 주관량의 의미기능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그 보편적 특징을 귀납하고자 한다.

2.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량

인간은 사물을 언어로 표현할 때에 대개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근거로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이른바 주관성이란 바로 언어

세를 정도량(程度量)으로 통합하여 5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3) 주관성에 대하여, Lyons(1995:337)는 '주관성'을 "언어 사용에서 표현된 자아"라고 하였으며, Finegan(1995:1)은 "담화에서 화자 자신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관점 또는 흔적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고 관련 주요 연구 영역은 화자의 시각, 청서, 인식의 세 방면이라 하였다. Traugott(2002:21)은 "화자의 시점을 부호화 한 것으로, 예를 들면 직시·양상·담화전략의 표시 등이 있으며, 이는 화자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지룡 1998, 최규발·조경환 200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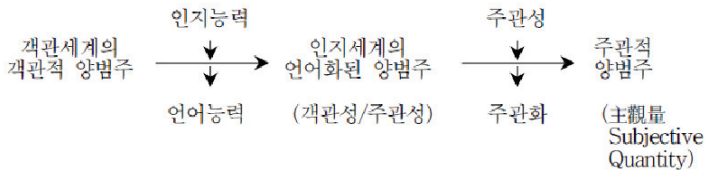
사용에 있어 자아와 관련된 표현성분들을 말한다. 즉, 주관성은 화자가 담화과정에서 ‘자기의 흔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기의 흔적은 화자의 코멘트, 태도, 관점, 시각, 정서, 인식, 입장, 감정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윤병달(1993:13)은 화자의존, 표현성, 감정성, 추상성, 일반성, 불확정성, 선택과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⁴⁾

<그림 1>

주관성	객관성	
화자의존	텍스트상의 인물에 의존	독립
표현적, 감정적	관념적	지시적
추상적		구체적
일반적		개별적
불확정적		확정적
선택과 해석이 다양함		선택과 해석이 제한됨

주관화란 주관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래 주관성이 없는 언어형식이 주관성을 갖게 되는 통시적 변화 과정을 뜻한다. 주관성과 주관화가 양 범주에 실현되면 주관량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데 양해승(2014)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



중국어의 주관량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 ‘就’, ‘才’, ‘都’ 등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馬真(1981)은 부사 ‘才’가 수

4) 양해승(2014) 재인용.

량의 앞에 사용되어 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施關淦(1988)도 시간부사 ‘就’는 時間이나 時量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과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陳小荷(1994)은 최초로 ‘주관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먼저 ‘주관적 평가의미를 포함하는 양’으로 주관량을 정의하고, 이른바 ‘주관대량’과 ‘주관소량’ 등의 하위개념을 제시하여 주관량의 정도성을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관대량(Large Subjective Quantity)’이란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많다’고 평가된 수량을 가리키며, ‘주관소량(Small Subjective Quantity)’은 반대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적다’고 평가된 수량을 뜻한다.

- (1) A: 乾了幾天了? (일한 지 며칠 됐어?)
 B1: 三天. (일한 지 삼 일 됐어.) ‘三天’ → 객관량
 B2: 都三天了. (일한 지 삼 일이나 됐어.) ‘三天’ → 주관대량
 B3: 才三天. (일한 지 삼 일밖에 안 됐어.) ‘三天’ → 주관소량
- (2) C1: 약속 시간에 무려 5분이나 지났다. ‘5분’ → 주관대량
 C2: 약속 시간에 단 5분만 지났다. ‘5분’ → 주관소량
- (3) D1: 遂十餘日方還. 《世說新語·識鑒》 ‘十餘日’ → 주관대량
 (십여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돌아왔다.)
 D2: 去十三歲, 唯二人得還. 《史記·大宛列傳》 ‘二人’ → 주관소량
 (13년이 지나고서는 2명만 돌아올 수 있었다.)

(1)에서 ‘三天’은 표면적으로 모두 ‘삼 일’이라는 시간의 양을 나타낸다. 하지만 B1에서는 객관량을 B2에서는 주관대량을 B3에서는 주관소량을 나타낸다. 한국어 예 (2)에서도 ‘5분’이라는 시간이 C1에서는 ‘무려’와 ‘이나’와 함께 쓰여 주관대량을 나타내지만, C2에서는 ‘단지’와 함께 쓰여 주관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1)의 ‘都’, ‘才’와 (2)는 ‘무려’, ‘겨우’는 각각 주관대량과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며, (3)의 고대중국어 부사 ‘方’, ‘唯’도 각각 주관대량과 주관소

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언어화된 양 범주에 대하여 대량 혹은 소량과 같은 판단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화자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 양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객관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물의 수량이 그것에 비하여 ‘많다’ 또는 ‘적다’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이 되는 양을 참조량이라고 한다.⁵⁾ 어떤 양이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면 주관 대량이 되며 반대로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면 주관소량이 된다.

중국어 주관량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李宇明(2000)은 중국어 주관량 표현의 전체적인 면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주관량 표현의 유형을 구분하였고,⁶⁾ 주관량의 표현 수단도 어표(語表)와 어경(語境)으로 양분하여 설명하였다.⁷⁾ 李善熙(2003)는 표지와 도상성 이론을 활용하여 관련 현상들을 설명하였는데, 특히 복수의 주관량 표기가 공기하면서 의미가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협력’과 ‘의미변형’으로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齊春紅(2008)은 주관량의 연속성에 착안하여 어기부사의 주관량을 4단계로 나누고 어기부사의 어순 문제를 설명하였다.⁸⁾

羅榮華(2012)는 李善熙(2003)의 참조량이 심리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참조량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고대중국어의 부사, 여기서, ‘連’ 강조구문, 복문, 고정형식 등의 형식들이 나타내는 주관량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주요 표현들의 연원과

5) 羅榮華(2010)는 참조량을 잠재적(隱性) 참조량과 명시적(顯性) 참조량으로 크게 양분하였다. 잠재적 참조량은 사실상 심리적 참조량을 말하는데, 사회적 정상량, 물리적 정상량, 개인적 정상량, 개인적 기대량, 객관적 실제량으로 세분된다. 명시적 참조량은 문장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상호 대비 작용을 통해 화자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李宇明(2000)은 주관량의 유형을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異態型, 直賦型, 誇張型, 感染型으로 나누었다.

7) 李宇明(2000)에 의하면 주관량을 나타내는 어표(語表, 언어적 표현) 수단은 구조 자체에 주관량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으로, 부사, 수량사, 여기서, 고정형식 등이 해당되며, 어경(語境, 문맥) 수단은 구조 자체에 주관량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으나 문맥을 통해 주관량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8) 齊春紅(2008)의 주관량은 主觀感量, 主觀估量, 相對主觀大量, 主觀大量的 4단계로 구분된다.

발전과정을 고찰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크다.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연구는 주관량이라는 의미 범주를 충분히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주관량 개념을 주로 개별 어휘의 분석에 분절적으로 사용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 학자마다 정의, 적용대상, 의미유형이 상이하여, 주관량 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로 주관량 표지들이 출현한 문장의 어순, 공기 제약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주관량 표현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과거의 어느 시기에 어떠한 유형의 주관량의 표지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갖는 통사·의미적 특징들이 무엇인지, 개별 어휘들은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유형학적으로 어떠한 공통점을 갖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이는 다시 공시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상고중국어 부사를 대상으로 주관량 표현들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어 주관량 표현들의 대한 공시적 혹은 유형학적 연구에 있어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3. 상고중국어 부사의 주관량

본고는 상고중국어 시기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斷代研究를 기초로 하며, 상고중국어 문헌에 출현한 부사 가운데 주관량의 의미 기능을 갖는 개별 어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에서 상고중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주관량 표지들을 크게 주관대량과 주관소량으로 양분하여 각 단어들의 어원과 용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단어들이 보이는 의미구조상의 보편적 특징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3.1 주관대량

3.1.1 已

《廣韻》, 《玉篇》에 의하면 ‘已’의 본의는 동사 ‘멈추다(停止)’ 또는 ‘마치다(完畢)’이다.⁹⁾ 시간부사 ‘已’는 이와 같은 ‘종결’이나 ‘완료’의 속성을 갖는 동사로부터 직접 파생되었다. 주로 동사나 형용사 등 술어 앞에 쓰여 ‘동작이나 상황이 이미 어떠한’을 나타낸다.

(4) 道之不行, 已知之矣. 《論語·微子》

(도가 행하여지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5) 筐篋已富, 府庫已實, 而百姓貧. 《荀子·王制》

(그의 금고가 이미 부유하고, 창고가 이미 가득 차게 되면, 백성은 가난해 지게 된다.)

이러한 ‘已’ 뒤에 수량구가 출현할 경우 ‘已’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량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만약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已’는 단순히 객관적인 어림수만을 나타낸다. 하지만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즉, 수량구가 지시하는 수량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점을 초과했음을 반영하게 되면, (6), (7)과 같이 ‘已’는 주관대량을 나타낸다.

(6) 楚有神龜, 死已三千歲矣. 《莊子·秋水》

(초나라에 신령스런 거북이가 있다는데, 죽은 지 이미 삼천년이나 지났다.)

(7) 既已爲一矣, 且得有言乎? 既已謂之一矣, 且得無言乎? 《莊子·齊物論》

(이미 하나인데 또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미 하나라고 말했는데 또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www.kci.go.kr

9) 《廣韻·止韻》: “已, 止也.”

《玉篇·已部》: “已, 畢也.”

3.1.2 將

《說文》에 의하면 ‘將’의 본의는 동사 ‘거느리다(率領)’이다.¹⁰⁾ 시간부사 ‘장차(將來)’ 용법은 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가차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부사 ‘將’은 주로 술어 앞에 쓰여 동작이 곧 실행될 것임을 나타내거나 문장의 주어가 주관적 의도에 의해 장차 어떠한 동작을 실행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미래에 필연적으로 출현할 것임을 추측하는 인식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將’이 수량구 앞에 쓰이게 되면 수량구가 나타내는 수량에 거의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단순히 객관적인 어림수만을 나타낸다. (8)에서 사방 오십 리의 수량은 문맥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 (8) 今滕絕長補短，將五十里也，猶可以爲善國。《孟子·滕文公上》
(지금 등나라는 긴 곳을 잘라 짧은 곳을 보충하면 사방 오십 리에 이르지만 여전히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심리적 참조량이 수량구가 나타내는 수량보다 작을 경우 ‘將’은 주관대량을 나타낸다. (9), (10)에서 수량구 ‘十世(열 세대)’가 나타내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인물이나 정사를 논의할 때 고려되는 시간에 비해 훨씬 긴 시간에 속한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 ‘將’은 후속 수량구가 나타내는 수량이 화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참조량 보다 큰 이른바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 (9) 夫謀而鮮過，惠訓不倦者，叔向有焉，社稷之固也，猶將十世宥之，以勸能者。《左傳·襄公21年》
(도모함에 있어 허물이 적고 가르침을 베풀기에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은 숙상이 있으니 그는 사직의 버팀목입니다. 열 세대라도 용서하시어 유능한 사람을 권면하여야 합니다.)

10) 《說文》：“將，帥也。從寸，警省聲。”

- (10) 夫韓魏父子兄弟接踵而死於秦者將十世矣. 《史記·春申君列傳》
(韓, 魏의 부자와 형제가 秦에 잇달아 죽은 것이 무려 열 세대에 달합니다.)

3.1.2 且

‘且’ 시간부사 용법은 대체로 ‘將’과 유사하다. 《說文》에 의하면 ‘且’의 본의는 명사 ‘도마’이다.¹¹⁾ 상고중국어 시기 이러한 명사적 의미기능은 이미 소멸되고 가차에 의해 시간부사 ‘且’가 탄생한다. 시간부사 ‘且’는 주로 술어 앞에 쓰여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곧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거나 어떠한 상황이 곧 출현할 것임을 나타낸다.

- (11) 病愈, 我且往見, 夷子不來. 《孟子·滕文公上》
(병이 나아지면 내가 한번 보러갈 것이니 이자는 오지 말게 하라.)
- (12) 決水而灌之三月, 城且拔矣. 《韓非子·初見秦》
(독을 터서 세 달 동안 물을 흘러들게 하면 성은 함락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且’가 수량구 앞에 쓰이면 ‘且’는 수량구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량에 이미 접근하였거나 곧 도달할 것임을 나타낸다. ‘將’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수량구가 나타내는 수량보다 작을 경우 ‘且’는 주관대량을 나타낸다. 《墨子》와 《史記·世家》에 용례가 보인다.

- (13) 若使中興師, 君子庶人也, 必且數千, 徒倍十萬, 然後足以師而動矣. 《墨子·非攻》
(만약 나라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면 군자와 서인은 반드시 수천에 달하고 병졸 수십만을 더한 뒤에야 비로소 군사를 일으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 (14) 梁多作兵器弩弓矛數十萬, 而府庫金錢且百巨萬, 珠玉寶器多於京師. 《史記·梁孝王世家》

11) 《說文》: “且, 薦也. 從几, 足有二橫, 一其下地也.”

(양나라는 화살(弩), 활, 창 등의 병기를 수십만 개나 제조했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금전이 근 1억에 달했으며 주옥과 보기(寶器)도 한 조정을 능가했다.)

3.1.3 猶

《說文》에 의하면 ‘猶’은 본래 일종의 개와 비슷한 모양의 원숭이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였다.¹²⁾ ‘猶’의 동사, 부사 등의 용법은 가차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還)’ 의미의 시간부사 용법은 상고중국어 시기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비슷하다(相似)’, ‘같다(相同)’ 의미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15)와 같이 술어 앞에 쓰여 과거에 발생한 모종의 사태가 아직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15) 今君雖終，言猶在耳。《左傳·文公7年》
(지금 임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말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법의 시간부사 ‘猶’가 (16)과 같이 수량구 뒤에 출현하면 주관 대량을 나타낼 수 있다.

- (16) 哀公問於有若曰，年饑用不足，如之何？有若對曰，盍徹乎，曰，二，吾猶不足，如之何其徹也。《論語·顏淵》
(애공이 유약에게 “금년에 가뭄이 들어 세금이 부족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묻자,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하여 십 분의 일을 받는 ‘철(徹)’을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십 분의 이도 충분히 부족한데 어찌 십 분의 일을 받으란 말인가.”고 대답하였다.)
- (17) 行年七十而猶有嬰兒之色。《莊子·達生》
(살아온 나이가 70이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색을 지니고 있었다.)

www.kci.go.kr

12) 《說文》：“猶，獲屬。從犬，酋聲。一曰隴西謂犬子爲猷。”

(16)에서 ‘吾猶不足’ 전체 절은 세금의 양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부족함(不足)’의 기준에서 본다면 ‘십분의 이’는 화자에게 매우 충분한 수치이다. (17)에서도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70의 나이는 어린아이의 얼굴색을 띄기에는 매우 많은 연령임을 표현하고 있다.

3.1.4 始

《說文》에 의하면 ‘始’는 일의 근원이나 시작을 나타낸다.¹³⁾ 허신은 ‘始’가 여성이 처음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始’는 (18)와 같이 한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19)와 같이 술어 앞에 쓰여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가 시작하였음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 天地者，生之始也，禮義者，治之始也，君子者，禮義之始也。《荀子·王制》

(천지는 삶의 시작이고, 예의는 다스림의 시작이며, 군자는 예의의 시작이다.)

(19) 始殺而嘗，閉蟄而烝。《左傳·桓公5年》

(가을의 쌀쌀함이 시작되면 嘗祭를 지내고 벌레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烝祭를 지낸다.)

(20), (21)과 같은 ‘始+술어’의 형식으로부터 ‘始’는 ‘시작하다’ 의미의 동사에서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재분석되었다.

(20) 昔賈大夫惡，娶妻而美，三年不言不笑，御以如臯，射雉獲之，其妻始笑而言。《左傳·昭公28年》

(하루는 賈大夫가 그녀를 수레에 태우고 臯澤으로 가서 꿩을 쏘아 잡으니 그 아내는 비로소 웃으며 말을 하였다.)

(21) 今始入秦，即安其樂，此所謂助桀爲虐。《史記·留侯世家》

13) 《說文》：“始，女之初也。”

(지금 진나라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그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이른바 결(桀)왕을 도와 포박한 짓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부사 ‘始’는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 뒤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 주관대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 (22) 能去八疵, 無行四患, 而始可教已. 《莊子·漁父》
(여덟 가지 하자를 제거하고 네 가지 걱정거리를 저지르지 않아야만 비소로 가르칠 수 있다.)
- (23) 荀卿, 趙人. 年五十始來游學於齊. 《史記·孟子荀卿列傳》
(순경은 조나라 사람으로 50세에 비로소 제나라에 와서 유세와 학문을 하였다.)

3.1.5 乃₁

《說文》에 의하면 ‘乃’는 문중의 어기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상고중국어 시기 부사로 상용되었는데 이는 가차에 의해 것으로 판단된다. 부사 ‘乃’는 주로 판단문에 쓰여 판단을 나타내거나 복문의 후행절에 쓰여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간부사로 쓰여 (24)와 같이 ‘방금, 막(剛剛)’을 나타내기도 하고, (25)와 같이 ‘비로소(才)’를 나타내기도 한다.

- (24) 是月也, 日夜分, 雷乃發聲, 始電, 蟄蟲咸動. 《禮記·月令》
(이달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우레가 비로소 소리를 내며 처음으로 번개가 치며 겨울잠을 자던 버리지들이 모두 움직인다.)
- (25) 吾求君子久矣, 今乃得之. 《國語·晉語五》
(내가 군자를 구한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찾았다.)

이 중 ‘비로소(才)’ 의미의 ‘乃’ 앞에 시량을 나타내는 수량구가 출현하게 되면, 동작, 행위, 상황의 출현이 예상이나 희망보다 늦음을 나타낸다. 주관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주관대량에 해당된다. (26)에서 부차는 매일 스스로 질문

과 대답을 하며 원수를 갚을 준비를 하며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해당된다.

(26) 苟出入，必謂己曰，夫差，而忘越王之殺而父乎？唯，不敢忘，三年乃報越。
《左傳·定公14年》

(듣고 날 때에 반드시 자기에게 “夫差야! 너는 越王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일을 잊었느냐?”고 말하고서, 夫差는 “예,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한 지 3년 만에 越나라에 원수를 갚았다)

3.1.6 幾

《說文》에 의하면 ‘幾’는 본의는 형용사 ‘위태롭다’이다.¹⁴⁾ ‘무섭다’, ‘의심스럽다’ 등의 형용사 용법들은 모두 ‘위태롭다’에서 직접 파생되었다. 화자가 위태로운 결과를 예측하는 문맥에서 ‘幾’는 ‘거의 ……이다(幾乎)’와 같은 판단을 나타내는 어기부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幾’는 후속 뒤에 출현하는 성분이 나타내는 사물, 상황, 수량 등이 어떠한 기준에 매우 근접했음을 나타낸다.

(27) 女以魯國驕人，幾矣。《荀子·堯問》

(너가 노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면 위태로울 것이다.)

(28) 月幾望。《周易·小畜》

(달이 거의 보름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의미의 ‘幾’가 수량구와 앞에 쓰이게 되면, ‘幾’는 앞에 제시되었거나 문맥에 의해 제시된 진술의 대상이 후속하는 수량구가 나타내는 수량에 거의 근접했음을 나타낸다. 주관량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주관대량에 해당된다. 선진 시기에 용례가 일부 보인다.

www.kci.go.kr

14) 《說文》：“幾，微也，殆也。”

- (29) 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孟子·梁惠王下》
(흉년과 기근이 든 해에 주군의 백성 가운데 노약자가 구학으로 굴러 떨어지고 장정이 흩어져 사망으로 간 것이 거의 천 명이 됩니다.)
- (30) 數廢數起, 爲御史及中丞者幾二十歲. 《史記·酷吏列傳》
(자주 쫓겨나고 자주 기용되어 御史及中丞이 된 것이 거의 20년에 이른다.)
- (31) 漢之爲漢幾四十年矣, 公私之積猶可哀痛. 《漢書·食貨志上》
(한나라가 한나라가 된 것이 거의 40년에 이른다. 그런데 공과 사 두 방면에서 쌓인 문제들은 애통해 할 만하다)

3.1.7 小結

아래는 이상에서 살펴본 상고중국어 시기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부사들의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¹⁵⁾

	已	將	且	猶	始	乃 ₁	幾
論語	0(50)	0(18)	0(12)	1(23)	0(7)	0(3)	0(5)
左傳	0(166)	1(1041)	0(347)	6(224)	0(120)	8(503)	1(45)
孟子	0(87)	1(82)	0(32)	2(61)	0(17)	0(13)	2(14)
莊子	2(191)	0(162)	0(138)	4(86)	1(147)	1(83)	0(37)
史記·列傳	6(494)	1(1391)	0(395)	0(79)	1(189)	15(1154)	3(48)

3.2 주관소량

3.2.1 唯/惟/維

《說文》에 의하면 ‘唯’의 본의는 동사 ‘승낙하다(答應)’이고¹⁶⁾, ‘惟’의 본의는 동사 ‘생각하다(思考)’이다. 본의로 사용될 때 이 둘은 비교적 엄격하게 구

15) 괄호 안은 총 출현횟수를 가리킨다.
16) 《說文》: “唯, 諾也.”

분되었다. 하지만 가차에 의해 생산된 허사 용법들에서 서로 혼용되었는데, 이는 형태와 독음의 유사성에서 기인한다. 姚振武(2015:243-244)에 따르면 ‘唯(惟, 維)’는 은상(殷商) 시기 모두 ‘隹’로 표기되어 강조를 표시하는 어조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서주 시기부터 ‘唯’, ‘惟’, ‘維’ 등으로 형태가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단지(只)’ 의미 범위부사는 동주 이후에야 생산되었다고 하였다.

범위부사 ‘唯’는 (32)과 같이 술어 앞에서 동작의 유일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33)과 같이 명사성 성분 앞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유일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32) 子路有聞, 未之能行, 唯恐有聞. 《論語·公冶長》

자로는 좋은 가르침을 듣고 미처 실행하지 못하면 오직 다른 가르침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33) 唯我知女. 女專利而不厭, 予取予求, 不女疵瑕也. 《左傳·僖公7年》

(오직 나만이 너를 안다. 너는 이익만 추구하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나에게 취하고 나에게 요구하였으나 너를 책망하지 않았다.)

부사 ‘唯/惟/維’는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면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 앞에서 주관소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34) 初, 騫行時百餘人, 去十三歲, 唯二人得還. 《史記·大宛列傳》

(처음 장건이 행할 때에는 백여 명이었는데 떠난 지 30년이 지나자 단 두 사람만이 돌아왔다.)

(35) 天下治亂, 在朕一人, 唯二三執政猶吾股肱也. 《史記·孝文本紀》

(천하가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운 것은 짐 한사람에게 달려있다. 단지 두 세 명의 집정대신들이 내 팔다리가 될 뿐이다.)

3.2.2 獨

www.kci.go.kr

《說文》에 의하면 ‘獨’는 본래 동사 ‘개가 서로 만나 다투는 것’을 가리킨다.

허신의 설명, 단옥재의 주 그리고 《說文通訓定聲》 등은 홀로 있으면서 무리를 이루지 않으려는 개의 본성으로부터 형용사 ‘단일하다(單一的)’의 의미가 인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獨’의 부사 ‘단일하게(單一地)’ 용법은 형용사 용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사 ‘獨’은 문장에서 (36)과 같이 ‘獨’ 앞의 동작의 주체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도 하고, (37)과 같이 ‘獨’ 뒤에 출현한 술어 자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38)과 같이 동빈구조 전체를 제한하여 제한의 대상을 목적어로 확대하기도 한다. 이른바 ‘단일함’에는 이미 수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 ‘獨’은 별도의 수량사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실상 주관 소량과 유사한 주관화된 양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36) 今民各有心，而鬼神乏主。君雖獨豐，其何福之有？《左傳·桓公6年》
 (지금 백성들은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귀신은 주재를 하지 않습니다. 임금께서 비록 홀로 풍성하시게 제사를 지내시지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 (37) 國皆其國也，奚獨賂焉。《左傳·襄公28年》
 (나라는 모두 그 나라 국민들의 것인데 어째서 백석에게만 봉읍을 준단 말이오.)
- (38) 今三臣始禍，而獨逐鞅，刑已不鈞矣。《左傳·定公13年》
 (지금 순인, 김길역, 조양 세 신하가 화를 일으키는데 오직 조양만을 쫓아냈으니 이는 형벌이 고르지 못한 것입니다)

‘唯/惟/維’와 마찬가지로 부사 ‘獨’은 수량성분 앞에 사용될 경우, 주관소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 (39) 夫尚賢使能，賞有功，罰有罪，非獨一人爲之也。《荀子·強國》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며 공적이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은 유독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다.)

17) 《說文》：“獨，犬相得而鬥也。從犬，蜀聲。羊爲羣，犬爲獨也。”

段註：“犬好鬥，好鬥則獨而不群。”

《說文通訓定聲》：“犬性獨，故爲寡單搏置之辭。”

- (40) 於是哀公號之五日，而魯國 無敢儒服者，獨有一丈夫，儒服而立乎公門。
 《莊子·外篇·田子方》
 (애공이 공포를 내리고 닷새가 지나자 노나라에는 감히 유학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유학자의 복장을 하고서 궁궐 문 앞에 서 있었다.)
- (41) 獨此兩人可耳，餘無可用者。《史記·田叔列傳》
 (이 두 사람만이 괜찮을 뿐, 그 나머지는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3.2.3 祇/祗

《說文》에 의하면 ‘祇’는 본래 땅의 신(地神)을 가리킨다.¹⁸⁾ ‘祇’의 허사 용법들은 ‘祇’가 ‘適’의 가차자로 쓰이면서 획득되었다.¹⁹⁾ 이 가운데 범위부사 ‘祇’은 주로 술어 앞에 쓰여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 (42) 君夫人在堂，三揖在下，君命祇辱。《左傳·哀公2年》
 (군부인께서 당상에 계시고 경, 대부, 사인이 당하에 있으니 임금의 명은 단지 욕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범위부사 ‘祇’가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게 되면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용례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 (43) 鄭人緩也，呻吟裘氏之地，祇三年而緩爲儒。《莊子·列禦寇》
 (정나라 사람 완이 구씨의 땅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는데, 단 3년 만에 완은 유학자가 되었다.)

18) 《說文》：“祇，地祇，提出万物者也。”

19) 《詩·小雅·我行其野》：“成不以富，亦祇以異。”，毛傳：“祇，適也。”

《國語·晉語五》：“病未若死，祇以解志。”，韋昭注：“祇，適也。”

3.2.4 止

《說文》에 의하면 ‘止’는 본래 명사 ‘아래의 기초(下基)’를 가리켰는데 여기에서 (44)과 같이 ‘발(足)’로 인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⁰⁾ (45)의 동사 ‘그치다(停止)’는 명사 ‘발’에서 파생되었다. ‘그치다’ 의미의 ‘止’는 (46)과 같은 동사성 성분을 목적으로 취하는 통사적 환경에서 은유적 확장과 재분석을 통해 범위부사 ‘단지(只)’ 기능으로 인신되었다.

- (44) 當斬左止者, 笞五百. 《漢書·刑法志》
(왼 발을 끊어야 할 사람은 대형 오백 대에 처한다.)
- (45) 一日三至而弗得見, 亦可以止矣. 《呂氏春秋·下賢》
(하루에 세 번 가면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쳐도 된다.)
- (46) 此吾所以知天之貴且知於天子者. 不止此而已矣. 《墨子·天志中》
(이것이 내가 하늘이 천자보다 존귀하고 지혜로운지를 아는 이유이다. 단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범위부사 ‘止’가 수량구 앞에 쓰이게 되면 주관소량을 나타낸다. (47)의 하룻밤 머무는 것(一宿)이나 (48)의 삼군의 무리를 통솔하는 것(將三軍之衆)은 모두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수량적으로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 (47) 仁義, 先王之蘧廬也, 止可以一宿而不可久處. 《莊子·天運》
(인의는 선왕의 초막이다. 단 하룻밤만 머물 수 있고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었다.)
- (48) 足下受詔擊齊, 何故止將三軍之衆. 《新序·善謀下》
(죽히는 제나라를 공격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았는데 어찌 삼군의 무리만 통솔합니까?)

www.kci.go.kr

20) 《說文》: “止, 下基也. 象艸木出有址, 故以止爲足.”
《儀禮·士昏禮》: “御衽于奧, 媵衽良席在東, 皆有枕, 北止.”, 鄭玄注: “止, 足也.”

3.2.5 僅

《說文》과 단옥재 주의 설명에 의하면 ‘僅’의 본의는 재능이 있음을 의미한다.²¹⁾ ‘단지(只)’ 의미의 한정류 범위부사 용법은 선진 시기에 이미 상용되었는데, 용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재능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술어 앞에 쓰여 주어가 나타내는 능력이나 조건에 대한 한정 의미의 의미를 나타낸다.

(49) 今天降災於周室，余一人僅能守府。《國語·周語中》

(지금 하늘이 우리 周나라 王室에 재앙을 내려 나 한 사람이 겨우 우리 先王의 창고를 지키고, 또 재주 없는 내가 叔父를 애쓰도록 하였습니다.)

(50) 游吉率車騎與戰，一日一夜，僅能克之。《韓非子·內儲說》

(유길은 수레와 기병을 인솔해 그들과 싸워서 하루 만에 겨우 이길 수 있었다.)

이러한 ‘僅’이 수량구 앞에 쓰일 경우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상고중국어 시기의 문헌에는 용례가 많은 편이 아니다.

(51) 欲言而請畢事者千有餘人，於是吾僅得三士焉。《荀子·堯問》

(예모를 갖추어 대접하는 선비는 백여 명이 있고, 자신의 말을 하고자 하고 일을 마치기를 청하는 자는 천여 명이 있다. 이 중에서 나는 겨우 훌륭한 사람 3명만을 얻었다.)

3.2.6 徒

《說文》에 의하면 ‘徒’의 본의는 동사 ‘보행하다(步行)’이다.²²⁾ 《說文通訓定聲》과 《易·賁卦》의 설명에 의하면, ‘徒’는 수레와 같은 교통수단의 도움 없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²³⁾ 이로부터 형용사 ‘아무것도 없다(空的)’가 인신

21) 《說文》：“僅，材能也。從人，堯聲。”段注：“材，今俗用之鍾字也。材能，言僅能也。”

22) 《說文》：“徒，步行也。從辵，土聲。”

23) 《說文通訓定聲》：“無車而行謂之徒，無車而戰謂之徒，無舟而渡謂之徒。”

《易·賁卦》：“賁其趾，舍車而徒。”

되고 더 나아가 부사 ‘공연히, 헛되이(徒然, 白白地)’로 발전하였다.

- (52) 齊師徒歸. 《左傳·襄公二十五年》
(제나라 군대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단지(只)’ 의미의 범위부사 ‘徒’는 부사 ‘공연히(徒然)’로부터 직접 인식되었다. (53)과 같이 술어 앞에 쓰여 술어나 나타내는 사태의 어느 한 방면을 의미상 제한하거나, (54)와 같이 술어 앞에 쓰여 술어 전체가 나타내는 내용이 유일한 원인이거나 유일한 선택임을 나타낸다.

- (53) 王如用子, 則豈徒齊民安, 天下之民舉安. 《孟子·公孫丑下》
(왕이 나는 진심으로 써준다면, 그것이 어찌 제나라 백성만을 편안하게 되겠는가! 천하의 백성이 모두 편안하게 될 것이다.)
- (54) 察九有之所以亡者, 徒從飾樂也. 《墨子·非樂上》
(구주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니 단지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徒’가 수량구 앞에 쓰일 경우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 (55) 顧吾念之, 彊秦之所以不敢加兵於趙者, 徒以吾兩人在也. 《史記·廉頗藺相如列傳》
(내가 돌아보며 생각하건대 강성한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에 병사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오.)
- (56) 文君夜亡奔相如, 相如乃與馳歸成都. 家居徒四壁立. 《史記·司馬相如列傳》
(탁문군이 밤에 상여에게 도망쳐 나오자 상여는 탁문군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 성도로 돌아왔는데 집안에는 네 개의 벽만이 세워져 있었다.)

3.2.7 特

《說文》에 의하면 ‘特’의 본의는 명사 ‘수소(公牛)’이다.²⁴⁾ 수소의 건장한

24) 《說文》: “特, 朴特, 牛父也. 從牛, 寺聲.”

특징으로부터 (57), (58)과 같이 형용사 ‘걸출하다(傑出)’과 ‘특별하다(特別)’ 등으로 인신되었다. 이들이 갖는 희소성의 특징으로부터 ‘特’은 (59), (60)과 같은 ‘단지(只)’ 의미 범위부사로 발전하였다. 주로 술어 앞에 쓰여 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내용을 한정한다.

- (57) 維此奄息，百夫之特。《詩·秦風·黃鳥》
(이 엄식씨란 사람은 백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 (58) 而彭祖乃今以久特聞，衆人匹之，不亦悲乎？《莊子·逍遙遊》
(그런데 팽조는 지금 오래 산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못 사람들이 그에 견주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
- (59) 妻止之曰，特與嬰兒戲耳！《韓非子·外儲說左上》
(처가 그것을 말리면서 “단지 아이에게 장난으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 (60) 故先王之制禮樂也，非特以歡耳目極口腹之欲也。《呂氏春秋·適音》
(그러므로 옛날 군주들이 예절과 음악을 만드는 것은 단지 귀와 눈을 즐겁게 하거나 입과 배에서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이 아니었다.)

한정류 범위부사 ‘特’ 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선진 시기의 예문은 《戰國策》에서 인용하였다.

- (61) 今楚國雖小，絕長續短，猶以數千里，豈特百里哉？《戰國策·楚策》
(지금 초나라는 비록 작지만 긴 곳을 끊어 짧은 곳에 보태면 오히려 천 리를 헤아리니 어찌 백 리뿐이겠습니까?)
- (62) 將以照千里，豈特十二乘哉。《史記·田敬仲完世家》
(이들을 가지고 천 리를 밝힐 수 있는데, 어찌 이십 승의 수레만 비출니까?)

3.2.8 直

《說文》에 의하면 ‘直’의 본의는 ‘똑바로 보다’이다.²⁵⁾ ‘단지(只)’ 의미 범위

25) 《說文》：“特直，正見也。從一，從十，從目。”

부사는 가차에 의해 생산되었다. 술어 앞에 쓰여 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내용을 한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 (63) 古者棺槨無度，中古棺七寸，槨稱之。自天子達於庶人，非直爲觀美也，然後盡於人心。《孟子·公孫丑下》
(옛날에는 관과 곽엔 법도가 없었는데 中古엔 관이 7촌이고 곽은 거기에 알맞게 하여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통용하였으니, 이는 단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사람의 마음에 흡족해지기 때문이다.)

한정류 범위부사 ‘直’ 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 (64) 不可，直不百步耳，是亦走也。《孟子·梁惠王》
(안됩니다. 단지 그가 백 보를 달아나지 않았을 뿐이지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
- (65) 今宋國之深，非直九重之淵也。宋王之猛，非直驪龍也。《莊子·德充符》
(지금 송나라의 깊이는 단지 아홉 겹의 깊은 연못 정도일 뿐이 아니고, 송나라 임금의 무서움은 단지 검은 용 정도일 뿐이 아니오.)

3.2.9 乃₂

상고중국어 시기 부사 ‘乃’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대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정류 범위부사로 쓰여 ‘단지(乃)’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乃’가 수량구 앞에 쓰이면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 (66) 以爲儒者所謂中國者，於天下乃八十一分居其一分耳。《史記·孟子荀卿列傳》
(유자(儒者)들이 말하는 중국은 천하에 있어 81분의 1을 차지할 뿐이다.)
- (67) 誤書! 馬者與尾當五，今乃四，不足一。《史記·萬石張叔列傳》

(잘못 썼구나! ‘마(馬)’는 꼬리에 반드시 5획으로 썼어야 했는데, 지금은 단 네 개만 있고 하나가 부족하다.)

3.2.10 小結

아래는 이상에서 살펴본 상고중국어 시기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부사들의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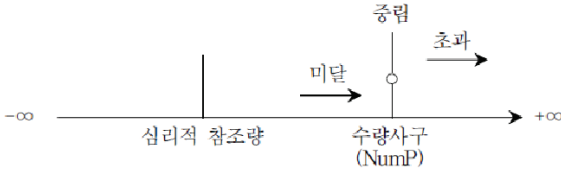
	唯/惟/維	獨	祇/祗	止	僅	徒	特	直	乃 ₂
論語	0/0/0 (15/3/1)	0 (3)	0/0 (1/1)	0 (8)	0 (0)	0 (6)	0 (0)	0 (22)	0 (3)
左傳	7/1/0 (168/33/4)	0 (26)	0/0 (7/8)	0 (175)	0 (1)	0 (109)	0 (6)	0 (30)	0 (503)
孟子	0/3/0 (2/42/1)	0 (24)	0/0 (0/1)	0 (17)	0 (0)	0 (17)	0 (0)	1 (13)	0 (13)
莊子	0/1/0 (46/3/4)	1 (65)	0/1 (0/1)	1 (79)	0 (1)	0 (37)	0 (14)	1 (27)	0 (83)
史記·列傳	2/0/1 (92/7/41)	6 (216)	0/0 (2/1)	0 (96)	0 (4)	2 (122)	2 (25)	0 (110)	4 (1154)

4. 주관량 표현의 생성 원리

양해승(2014)은 주관대량과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의 생성원리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품사들은 실제량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된 양을 표현하며, 실제량과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수량 사이의 관계에 따라 초과·중립·미달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예를 들면, ‘적어도’, ‘최소한’ 등은 초과형이고, ‘-까지’, ‘무려’, ‘별써’ 등은 중립형이며 ‘가까이’, ‘거의’ 등이 미달형에 속한다.

26) 괄호 안은 총 출현횟수를 가리킨다.

<그림 3>



이상의 기준에 따라 앞의 장에서 살펴본 상고중국어 부사의 주관대량 표현들을 다시 살펴보면, ‘將’, ‘且’, ‘幾’ 등은 미달형에 속한다. 이들 부사가 출현한 문장에서 실제량은 수량사가 나타내는 수량에 항상 미치지 못한다. 반면, ‘始’, ‘乃’, ‘已’, ‘猶’ 등은 중립형에 속한다. 이들이 출현한 문장에서 실제량과 수량사가 나타내는 수량은 대체로 동일한 수준이다. 고대중국어에서 초과류 주관대량 표현은 ‘至少’, ‘最少’ 등이 있으나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아직 부사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초과·중립·미달의 유형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개별 단어의 문법화 경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달형 주관대량 표지 가운데 ‘將’과 ‘且’는 장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에서, ‘幾’는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어기부사에서 각각 기원하였다. 모두 본래 미실현의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사건의 출현을 확신하고 그것을 예측하는 의미를 나타냈다. ‘주관대량’은 사건 출현에 대한 확신이 수량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획득되었다. 즉 이들 부사의 의미 기능은 은유적 사상에 의해 ‘미래’ 또는 ‘인식’에서 ‘주관대량’으로 분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분화 이후에도 어원어의 기존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일부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미실현의 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 ‘미달형’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Hopper (1991)가 제시한 문법화의 원리 중 하나인 의미지속성(persistence)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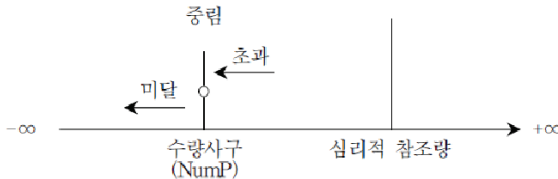
중립형의 경우 ‘始’, ‘乃’는 사건이 이미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에서,

27) 이성하(184-186) 채인용.

‘已’는 사건이 이미 완료 또는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에서, ‘猶’는 기존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에서 각각 기원하였다. 각각이 나타내는 시간 의미는 상이할 수 있겠으나 발화시 또는 참조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은 모두 이미 온전하게 발생한 기실현의 상태에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아 사건의 실제시가 발화시 또는 참조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을 때만 사용된다. 본고는 어원어가 갖는 사건의 기발생성이 은유적 전이에 의해 주관대량으로 분화되었으며, 동시에 어원어의 현재관련성이 분화 이후에도 지속되어 초과나 미달이 아닌 중립류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양해승(2014)은 또한 주관적 소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주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된 양을 표현하는 것들이며 주관대량과 마찬가지로 실제량과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수량 간의 관계에 따라 초과·중립·미달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초과·중립·미달 세 유형 모두 주관량을 나타낼 수 있지만 참조량의 위치에 따라 주관대량과 주관소량으로 구분됨을 반영한다. 한국어의 예를 들면, ‘남짓’, ‘남짓하다’ 등은 초과형, ‘만’, ‘겨우’, ‘고작’ 등은 중립형, ‘기껏’, ‘최대한’ 등은 미달형에 각각 속한다.

<그림 4>



앞의 장에서 살펴본 상고중국어 부사의 주관소량 표현들을 다시 살펴보면, ‘唯/惟/維’, ‘獨’, ‘祇/祗’, ‘止’, ‘僅’, ‘徒’, ‘特’, ‘直’, ‘乃’ 등은 모두 한정류 범위부사로 중립형에 해당된다. 한정류 범위부사는 공통적으로 문장에서 제시된 동작이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실제로 언급하고

자 하는 동작이나 사건이 문장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사들을 사용할 수 없다. 본고는 범위의 제한성으로부터 주관소량의 기능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그 제한성의 지향점이 동작이나 행위 자체에 있기 때문에 주관량 표지로 발전한 이후에도 그 속성을 유지하여 미달이나 초과류가 아닌 중립류로 발전하였다고 판단한다.

물론 고대중국어에서 초과류 주관소량 표현은 ‘至多’, ‘頂多’ 등이, 미달류 주관소량 표현으로는 ‘不遇’, ‘不到’ 등이 존재하였지만 상고중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부사로 발전한 용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본고는 주관량에 관한 기존의 성과를 종합하여, 상고중국어 문헌인 《左傳》, 《論語》, 《孟子》, 《莊子》 등을 중심으로 상고중국어 부사의 주관량 표현 단어들의 통사·의미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고중국어의 일부 부사는 수량사와 함께 쓰여 주관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이 나타내는 주관량 의미는 사물의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 보다 큰 주관대량과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 보다 작은 주관소량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상고중국어 부사는 중립형으로 ‘始’, ‘乃’, ‘已’, ‘猶’, 미달형으로 ‘將’, ‘且’, ‘幾’ 등이 있다. 초과형은 상고중국어 시기에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始’, ‘乃’은 앞의 성분을 의미 지향하는 전향류이며, 나머지는 뒤의 성분을 의미 지향하는 후향류이다.

셋째, 주관소량을 나타내는 상고중국어 부사는 ‘唯/惟/維’, ‘獨’, ‘祇/祗’, ‘止’, ‘僅’, ‘徒’, ‘特’, ‘直’, ‘乃’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립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뒤의 성분을 의미 지향하는 후향류이다. 초과형, 미달형은 상고중국어 시기에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 參考文獻 >

- 《論語》，《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1980.
- 《孟子》，《十三經注疏》，北京：中華書局，1980.
- 《史記》，司馬遷 撰，北京：中華書局，1982.
- 《說文解字注》，許信 撰，南京：鳳凰出版社，2015.
- 《宋本玉篇》，顧野王 撰，北京：北京市中國書店，1983.
- 《莊子集釋》，莊周 撰，郭慶藩 集釋，北京：中華書局，1961.
- 《春秋左傳注》，楊伯峻 注，北京：中華書局，1981.
- 이선희, <현대중국어의 주관량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언어연구》 17, 2003.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8.
- 임지룡,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 《담화와 인지》 5(2), 1998.
- 양해승,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국어학》 71, 2014.
- 윤병달, <영어에 있어서 의미의 주관성과 통사적 표면형>, 《언어연구》 9, 1993.
- 최규발·조경환, <파자구와 상>, 《중국언어연구》 23, 2006.
- 陳小荷, 《主觀量問題初探 - 兼談副詞“就”、“才”、“都”》, 《世界漢語教學》 (4), 1994.
- 李善熙, 《漢語“主觀量”的表達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論文, 2003.
- 李宇明, 《主觀量的成因》, 《漢語學習》 (5), 1997.
- 李宇明, <數量詞與主觀量>, 《華中師範大學學報》 (6), 1999.
- 李宇明, 《漢語量範疇研究》,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0.
- 李佐豐, 《古代漢語語法學》,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羅榮華, 《古代漢語主觀量表達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馬 眞, <修飾量詞的副詞>, 《語言教學與研究》 (1), 1981.
- 齊春紅, 《現代漢語語氣副詞研究》,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8.
- 沈家煊, <語言的“主觀性”和“主觀化”>, 《外語教學與研究》 (4), 2001.
- 施關淦, <試論時間副詞“就”>, 《語法研究和探索》 (四),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史金生, <語氣副詞的範圍、類別和共現順序>, 《中國語文》 (1), 2003.
- 尹淳一, 《<祖堂集>情態動詞及其語法化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 張誼生, 《現代漢語副詞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2000.
- 張誼生, 《試論主觀量標記“沒”、“不”、“好”》, 《中國語文》 (2), 2006.
- Lyons, J., *Semantics(V.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ulleyblank, Edwin G.,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1995. (양세욱 역, <고전중국어 문법 강의: 한문과 언어학의 만남>, 서울: 궁리, 2005)

Traugott, Elizabeth C. & Dasher, Richard B.,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zh>

< Abstract >

The Research of Subjective Quantity of the Ancient Chinese Adverbs

Yoon, Soon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bject quantity semantic function represented by the adverb of Ancient Chinese language. First, the examples of adverbs representing subject quantity were laid out. Second, the ancient Chinese adverbs, which represent a large subjective quantity include '始', '乃', '已', '猶', '將', '且', '幾'. Among them, '始', '乃', '已' and '猶' are neutral types and '將', '且', '幾' is shortfall types. Third, the ancient Chinese adverbs, which represent a small subjective quantity include '唯/惟/維', '獨', '止', '僅', '徒', '特', '直', '祇/祗' and '乃', all of which are neutral types.

Key words: Ancient Chinese, Adverbs, Subjective quantity, Large subjective quantity, Small subjective quant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30	2019. 5. 13	2019. 5. 14	2019. 5. 23	2019. 6. 30